



# 해 외 석 유 정 보

본란은 해외석유산업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석유협회에서 발간중인 석유정보다이제스트 내용을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 편집자 주 -

## ● Chevron-Texaco 합병과 향후 전략 ●

얼마전 셰브론과 텍사코의 합병에 대해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나뉘고 있다. 즉, '셰브론텍사코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석유회사로서 어떻게 협력·운영하여야 하는가, 그 회답은 19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양사가 절반씩 출자해서 만든 자회사 칼텍스의 탄생이라고 한다. 이후 65년간 칼텍스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다양한 세계비즈니스를 구축해왔다.

### 셰브론과 텍사코의 합병

칼텍스사는 상장회사는 아니지만, 종업원 6,000명, 세계 60개국에서 원유를 정제해 석유제품·LNG나 가스를 판매해왔다. 거래물량 140만b/d, 매출액 202억\$에 달한다. 통상적인 기업합병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코스트절감효과로서 양사는 우선 12억\$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는 '20억\$내지 그 이상' 이라고도 분석하고 있다. '양사 공히 대기업이고 석유일관조업기업이고 서로 협력불가능한 특이한 경영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문화가 충돌하는 사태는 생기지 않는다' 라고 보고 있다. 텍사코의 보유매장량 51억배럴을 합한 셰브론텍사코의 매장량은 원유환산 112억배럴에 달하고, 천연가스생

산회사로서는 북미 최대회사가 된다.

한편, 다른 전문가에 따르면 '셰브론과 텍사코의 합병은 Exxon-Mobil, BP-Amoco-Arco와 동일하게 논할 수 없다' 고 한다. 즉, 코스트삭감액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견해는 일치하지만 '그 금액은 ExxonMobil이 달성한 금액과는 차이가 난다. 기업규모 뿐만 아니라 기업통합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메리트도 ExxonMobil과는 크게 다르다' 라고 한다.

그러나, 여러 애널리스트들은 양사의 상류부문 자산에서의 오버랩이 있기 때문에, 합병에 의해 큰 코스트절감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유럽이나 미국의 하류부문, 또, 석유화학부문에서는 오버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스트절감의 무대는 미국과 해외 상류부문사업, 그리고 본사경비에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즉시 달성가능한 코스트절감은 15~17.5억\$ 정도이고 월가에서는 25억\$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Exxon의 최초 코스트절감은 28억\$였지만, 최종목표는 그 2.5배까지 늘어났다. 이것을 셰브론텍사코에 적용하면 30억\$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규모로 볼 때 무리일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다.

기업규모로는 Exxon의 약 3,000억\$에 비해 1,000억\$ 이하이다. 또, Shell과 BPAmoco는 양쪽 모두 1,900억\$이다. 석유회사의 비즈니스는 상품시

세에 기초해 물량을 취급하는 상업활동이고 석유회사 자체로는 가격을 결정하는 힘은 없다. 따라서, 석유회사는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배럴당 코스트를 적극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 그 점에서 세브론텍사코에도 충분히 수퍼메이저간의 치열한 경쟁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분석가는 많다. 칼텍스는 모회사 세브론텍사코의 합병에 보조를 맞춰 계속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려고 한다.

동사는 금년에 창립 65주년이 되는데 최근에 단일 법인조직으로 재편됨에 따라 기존과 같은 자립성은 없게 된다. 그러나, 이 재편에 따라 동사는 아시아에서 모회사가 독자적으로 실시해 온 여러 상류 및 전력 등의 프로젝트를 포함해 상류·하류에 이르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중국과 같은 발전시장에서의 사업전개나 지역적인 가스·전력사업전략, 원유공급 효율화에서 보다 강한 입장에 서게 된다.

84.6만b/d의 능력을 갖는 정제사업이나 광범위하게 미치는 소매망의 운영은 세브론텍사코의 조직망 안에 통합된다. 그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류시장은 세브론에 의한 중동 걸프지역에서의 원유공급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구축되어 왔다. 최근에는 각각의 전략은 별개로 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해 온 칼텍스, 세브론, 텍사코 3개사는 중국, 인도, 베트남과 같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소식통의 추측에 따르면 합병후 세브론텍사코는 특히 중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최근 세브론과 중국해양석유총공사(오스

트레일리아의 고곤 가스전의 가스를 중국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 거대해진 세브론텍사코

이와 병행해서 거대해진 세브론텍사코는 3개사가 가진 자산을 하나의 포트폴리오 가운데 넣는 한편, 하류부문에 있어서의 칼텍스 브랜드의 인지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추측된다.

텍사코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전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상류부문에서는 세브론이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파푸아뉴기니에 텍사코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앞바다에 가스개발의 이권을 갖고 있다.

게다가 석유거래는 3사가 자주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서로 매매 상대가 되어 거래하고 있다. 향후 석유판매 뿐만 아니라, 운할유판매나 위기관리, 국제적인 고객관리 등에서 통합시스템 구축을 지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예를 들면 항공용이나 선박용 연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찬가지로 칼텍스의 70만b/d에 달하는 산유능력을 세브론과 텍사코 2개사에 나누어져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원유공급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간석유정책, 2001. 11. 25〉



## ● 중국의 석유수출입 현황 ●

IMF가 최근 발표한 중국경제보고에 따르면 금년의 실질 GDP성장률은 7.5%로 작년의 8% 보다 감소하지만,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해서 '강한 성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국가통계국은 금년 제1/4분기가 전년 동기대비 8.1%, 2/4분기가 7.8%, 3/4분기가 7%(1월~9월 7.6%)로 서서히 둔화되었지만, 정부는 1년 전체적으로 7% 전후라고 예측하고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금년말 2,000억\$(추정)(홍콩, 대만을 포함한 중국권에서 이미 4,000억\$ 초과(일본은 9월말에 3,970억\$)이고 ①공공투자, ②국유기업의 설비투자, ③내수 등은 여전히 왕성하게 경기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원유수출, 제품수출 동향은 다음과 같다.

大慶원유 생산은 작년 5,300만톤(106만b/d), 금년 1월~8월 3,438만톤(103만b/d)로 약간 감소했다.

금년 8월의 휘발유수출량은 57만톤, 1월~8월에 412만톤(전년동기대비 40% 증가)을 기록했다. 금년 1월~8월의 원유처리량은 1억3,883만톤(416만b/d)으로 전년동기대비 ▲0.6%를 기록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①원유수입관세(16위엔/t), ②1998년 9월 이후 실시하고 있는 휘발유, 디젤연료유의 수입금지조치 등은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작년까지 15년간, 원유처리량은 매년 두자리수 증가를 기록했었는데, 앞으로 가동률 상승은 어려워진다. 증유 수입은 금년 1월~8월에 1,211만톤(전년동기대비 +32%)을 기록했다. 이 증가는 원유처리감소로 증유생산이 1,201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5%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SETC)는 증유수입할당제도하에 금년 4월~9월의 800만톤, 10월~내년 3월은 600만톤, 연간 1,400만톤으로 보고 있다. 증유의 주요 수입원은 러시아, 한국, 싱가포르, 홍콩이다.

중국의 원유수출(2000년, 2001년 1월~8월)

(단위:만톤)

	일 본	인 나	미 국	한 국	북 한	태 국	홍 콩	인 도	기 타	합 계
2000	496	98	175	68	39	66	35	25	42	1,044
전년대비	▲2	74	139	▲27	7	66	29	25	16	327
2001.1~8	257	83	53	31	39	?	16	?	29	508
전년대비	▲20	49	25	6	14	?	16	?	2	92

중국의 석유제품수출입량(통관기준) (2000년, 2001년 1월~8월)

(단위:천톤)

	2000				2001. 1~8			
	수출 (a)	전년비 %	수입 (b)	전년비 %	a-b	수출 (a)	수입 (b)	a-b
휘발유	4,551	10	-	-	4,551	4,118	-	4,118
나프타	687	7배	123	▲67	564	613	40	573
등유·제트유	1,772	42	2,182	3	▲410	1,123	1,220	▲97
경질디젤연료유	555	▲8	259	▲17	296	168	188	▲20
중유	309	47	11,181	▲21	▲10,872	279	12,112	▲11,838
합계	7,874	25	13,745	▲19	▲5,871	6,301	13,560	▲7,259
중유 제외	7,565	24	2,564	▲8	5,001	6,022	1,448	4,574

〈순간석유정책, 2001. 11. 25〉

## ● BP, 일본시장에서 4년만에 철수 ●

### 21개 주유소 모두 매각

일본 동경에 본사를 두고 있는 BP Japan이 일본 국내에 진출해 있는 21개 주유소를 모두 매각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10월 26일, 정식 발표했다. 국내에 제1호점을 오픈한지 4년이 못 되서 내린 결정이다. BP는 Exxon-Mobil, Shell 다음 가는 수퍼메이저 중 하나인데 그 메이저브랜드가 일본 국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BP는 쇼핑몰 등 부지내 혹은 인접지에 주유소를 개설해왔다. 제1호점은 편의점, 홈센터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이세야흥산그룹과 제휴해 1997년 12

월 15일, 群馬(군마)현에 독자 편의점 'BP Express' 라는 이름으로 연속세차기를 갖추고 오픈했다. 제1호점 오픈시 BP와 이세야흥산측의 대표가 기자회견 석상에서 제1호점의 성공을 전제로 양사의 제휴를 통해 6,7년 사이에 100개 이상의 주유소를 오픈한다는 계획을 천명했었는데, 당시 상당히 의욕적인 출발이었다. 그러나, BP의 진출을 계기로 群馬(군마)현은 Worst시장의 하나로 전락하게 된다.

### 오픈계획 지연

그 후, 98년 2개, 99년 7개, 금년 9월까지 6개 주유소가 오픈했다. 해마다 점포오픈이 가속화된다고



# 해 외 석유 정보

는 하나 '7~10년간 200~300개' 라는 목표에 비해 대폭 지연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주유소 오픈은 항상 슈퍼마켓 등을 경영하는 유통업자와 제휴해 전개하고 있었지만 제휴처와의 교섭이나 용지 확보에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오픈계획이 늦어진 요인이라고 보여진다. 또, 제1호점 오픈 당시는 '이세야'와의 제휴로 일정 지역에 한정된 집중 출점 전략이었지만, 關西(간사이)시장에 진출하는 등 주유소를 최종적으로 9개 지역에 폭넓게 진출시켜 경비 증대를 초래한 것도 주유소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또, Solar Panel에 의한 자가발전 시설이나 저수설비를 갖춘 '화재대응형주유소'를 21개중 5개주유소에서 전개했다. 화재대응형주유소의 보급은 국가 정책상 보조금이 나온다고는 하나 BP의 주유소는 일반적인 주유소에 비해 코스트가 높았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과열경쟁상태에 있는 일본 주유소시장에 BP의 철수는 그 치열한 경쟁의 한 증거이기도 하다.

## 여러사가 승계에 관심

BP가 일본 국내에서 주유소 전개를 시작한 이후, 세계 석유시장은 격변했다. Exxon-Mobil로 대표되는 메이저간 합병이 이어지고 BP도 합병 전략을 전개했다. Seven Sister라고 불린 메이저 7개사는 4개사로 집약되었다.

이와 같은 정세변화가 BP의 일본시장 철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BP는 태국이나 대만에서 철수, 앞으로 큰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BP의 세계전략으로 볼 때 일본시장의 21개의 Network는 매력적이지 못했다. 수익성에서도 당초 1개 주유소당 평균 월간 500kl 이상을 판매했

었지만, 진출했던 서일본이나 北陸(호쿠리꾸) 등에서는 판매량이 감소, 매각발표시에 '전점 평균 연료 판매량이 국내평균을 대폭 웃도는 등 업적호조'라고 했지만, 대형 원매회사는 '100kl 정도의 평균판매량과 비교했을 때의 얘기'라고 본다. 전국적인 전개로 1개 주유소당 평균판매량이 감소, 그 한편에서 소매시세는 장기 하락해 기대 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없었다고 보여진다.

BP가 일본시장에 진출한 4년전은 특석법 폐지로 휘발유시세가 혼미를 거듭했던 시기이다. 셀프주유소는 그 당시 규제를 받고 있었는데, 해금을 앞두고 주유소 시장의 장래에 불안감기 강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진흙탕에 발을 들여놓을까'라며 당시는 BP의 진출에 회의적인 견해가 많았지만, '진출하면 성공할 수도 있다. 메이저의 비책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메이저 자체의 전략 재검토도 있었지만, 메이저 브랜드의 신통력은 흥미했던 일본시장에 통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BP는 쇼핑센터와 제휴해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주유소가 있어 매각하는 것은 경영권과 임차권 등 일부 자산. '여러 회사가 영업승계에 흥미를 나타내고 있다'(BP)라고 하는데 21개 주유소중 셀프주유소를 계승하는 것은 어디인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BP의 철수는 경쟁단위가 줄고 진출해 있던 시장에서는 불안 해소로 연결된다. 그러나, 그 한편에서 '매력없는 일본시장'이 부각됨으로서 지금 휘발유시장은 거듭 심각한 혼미상태에 돌입, 주유소 사업에서 철수하는 사태가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위기적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연료유지신문, 2001. 11. 5〉

## 일본, 석유비축확보법 1월 시행

일본은 석유업법 폐지와 함께 석유비축법을 개정 한 '석유의 비축 확보 등에 관한 법률'(석유비축확보법)이 2002년 1월 1일 시행되고, 석유업법상에 '신고제' 였던 석유수입업자가 '등록제' 로 바뀐다. 그에 따라, 원매정제업자 이외의 신규수입업자는 등록이 필요하고 자원에너지청은 석유비축확보법의 시행을 앞두고 조만간 그 취지를 통지해서 주지사에게 예정이다. 또, 새롭게 정의된 '원유판매업자' 나 신고사항에 추가가 필요한 '특정석유제품판매업자' 도 시행후에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일본석유연맹에는 7일 오전에 설명회를 개최 해 시행규칙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

### 정제업은 신고제

석유비축확보법에서 지금까지의 석유업법에 비해 크게 변경된 것은 석유수입업의 등록제로의 변경이다. 석유업법상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 석유수입업자 중 정제·원매회사나 석유공단을 제외한 소위 특석법 폐지에 따라 신규로 참여한 신규수입업자는 경제산업성 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하고 시행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은 ①법률위반을 하지 않는다, ②비축의무 이행에 필요한 저장능력을 보유한다등 2가지인데 등록에는 등록신청서나 등록자의 주민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임원 전원의 주민표 초본), 등록자의 이력서(법인은 임원 전원의 이력서), 법인의 경우는 정관 또는 거래행위 및 등기부등본, 저장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저장시설의 서류, 서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시행후 3개월 이내에 등록이 필요하고 2002년 4월 1일부터는 미등록 상태의 수입은 불가능하다.

특정설비는 하루 처리량이 150kl 이상(23.85b/d 이상)의 CDU시설과 석유개질시설, 석유분해시설이고, 석유정제업자는 특정설비를 사용해서 지정석유제품(나프타를 포함한 휘발유, 제트연료를 포함한 등유, 경유, 중유)을 제조하는 업자인데 석유업법상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다. 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업법에서 규정하는 판매예정량 혹은 전년도 판매량중 큰 물량으로 휘발유에서 2,400kl, 등유 60kl, 경유 1,800kl, 중유 120kl, 석유가스 360톤의 기준이 석유비축확보법으로 계승되어 이 규모 이상의 업자는 신고가 필요해진다.

신법에서 정의된 '원유판매업자' 는 연간 원유판매예정량이 1,000kl 이상의 업자이다. 대상이 되는 업자는 시행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신법에서는 소위 원매업자를 지칭하는 '특정석유판매업자' 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석유판매업자를 연간판매량 250만kl 이상으로 석유정제업자와 직접 혹은 자회사, 계열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석유 판매계획이나 정제업자와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추가해서 시행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비축의무 대상은 신고월의 전12개월의 지정제품 생산량이 10만kl 이상의 정제업자와 특정석유판매업자, 신고월의 전12개월에 수입실적이 있는 석유·석유가스 수입업자인데, 전12개월에 실적이 없는 경우도 신고월의 전월에 보유해야 하는 기준비축량을



# 해 외 석유 정보

갖고 있던 업자도 대상이 된다.

또, 석유업법상에 허가를 받고 있는 정제업자나 신고를 한 석유판매업, 석유가수수입업의 신법상의

신고는 불필요하다.

〈연료유지신문, 2001. 12. 6〉

## ● 일본 석유판매업의 2000년도 경영실적 ●

일본의 전국석유협회가 발표한 '석유제품판매업 경영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2000년도(2000년 4월~2001년 3월)의 석유제품판매업자의 영업이익 기준 적자비율이 55.1%로 전년도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물량 증가에 따라 매출액이 늘었지만 원유가격 인상에 의한 매입가격 상승분의 소매가격에 대한 완전반영이 여의치 않아 총이익액이 보통휘발유를 제외하고 하락했다. 유외상품판매 강화와 판매관리비 절감을 추진해 수익개선으로 연결된 주유소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는 전국 5,000개사(셀프주유소를 운영하는 기업 제외)를 대상으로 금년 6~7월에 실시되었다(회수율 39.1%). 회답기업의 96.7%는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3.3%이다. 주유소를 1~3개 운영하는 기업이 84.9%를 차지하고 있다.

영업이익기준으로 보면, 흑자기업은 44.9%, 적자기업은 55.1%로 적자기업의 비율이 전년도보다 2.1% 감소했다. 경상이익 기준으로는 흑자기업이 59.6%, 적자기업은 40.4%로 2.4% 감소했다.

연료유와 윤활유를 합한 1개 기업당 연간총판매량(직매·도매 포함)은 9,811kl, 전년도대비 80kl 증가했다. 세차나 TBA(타이어, 배터리, 약세서리) 등을 추가한 연간총매출액은 7억 9,690만엔으로

6,200만엔 증가했다. 한편, 연료유와 유외상품만을 합한 1개 기업당 총이익은 18.2%로 전년도대비 1.6% 하락(전기업평균으로는 18.9%, 0.7% 감소). 총이익은 65만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보통휘발유가 3,470만엔으로 182만엔 증가했지만, 등유의 300만엔을 비롯해 전유종이 감소했다. 윤활유, 세차, 점검정비 등 유외상품은 258만엔 증가했다.

매입단가는 보통휘발유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6엔/ℓ 상승한데 비해 판매단가는 6.1엔/ℓ 상승했다. 매입단가 상승분의 전가가 되긴 했지만, 다른 유종에서는 0.4~0.8엔/ℓ 미달로 끝내 판매업자가 수익 확보를 유외상품에서 얻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체회답기업 평균으로 보면, 매출액 판매관리비율은 18.4%로 전년도대비 1.2% 하락했다. 그 가운데, 인건비율은 10.1%로 0.9% 감소했다. 인건비율을 운영주유소수별로 보면, 2~3개 운영하는 기업이 2.3% 감소해서 10.5%로 나타난 외에 6~9개 기업에서도 1.6% 줄어 든 8.3%로 나타나 가장 낮게 억제되는 등 경비절감이 추진됨으로써 전체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0.5%로 전년도의 제로에서 상승했다. 경상이익률은 0.9%로 0.3% 상승했다.

〈연료유지신문, 2001. 12. 10〉

# 국내 석유제품 가격동향

(단위: 원/ℓ)

	무연휘발유				보일러등유			
	공장도		대리점	주유소	공장도		대리점	주유소
	세전	세후			세전	세후		
2000년 1월	295.84	1,144.54	1,160.69	1,220.34	311.60	440.66	454.40	515.39
2월	293.65	1,142.14	1,157.15	1,214.00	308.19	436.91	450.80	512.97
3월	329.11	1,142.14	1,156.25	1,212.51	327.74	436.91	449.95	512.77
4월	307.29	1,118.14	1,132.15	1,190.17	309.56	416.91	429.34	486.61
5월	271.83	1,118.14	1,132.78	1,187.77	272.37	397.51	409.72	472.36
6월	326.38	1,178.14	1,191.85	1,246.45	307.83	436.51	447.86	512.03
7월	326.38	1,178.14	1,192.32	1,244.38	307.83	436.51	447.83	512.11
8월	347.11	1,200.94	1,215.61	1,275.65	337.25	468.87	481.24	545.72
9월	374.38	1,230.94	1,243.77	1,306.92	363.46	497.71	509.99	574.61
10월	374.38	1,230.94	1,244.21	1,306.15	408.01	546.71	558.71	624.39
11월	346.20	1,199.94	1,213.97	1,277.86	422.01	562.11	574.37	638.31
12월	370.56	1,226.74	1,239.77	1,297.53	417.46	557.11	570.48	631.26
2000년 평균	330.26	1,175.91	1,190.04	1,248.31	341.11	469.54	482.06	544.88
2001년 1월	362.56	1,217.94	1,230.53	1,287.02	394.92	532.31	544.58	606.52
2월	362.56	1,217.94	1,230.68	1,285.34	394.92	532.31	544.68	606.37
3월	362.56	1,217.94	1,230.38	1,284.85	394.92	532.31	544.69	605.98
4월	377.52	1,234.40	1,246.81	1,294.67	394.92	532.31	544.19	605.75
5월	377.52	1,234.40	1,246.73	1,294.67	376.92	512.51	524.21	605.75
6월	390.07	1,248.20	1,259.33	1,301.15	376.92	512.51	523.33	587.79
7월	390.91	1,248.20	1,259.00	1,302.25	340.07	503.11	518.59	587.01
8월	369.09	1,224.20	1,236.15	1,291.87	310.62	470.71	486.00	564.99
9월	348.63	1,201.70	1,212.13	1,278.93	315.36	475.93	487.38	559.36
10월	349.09	1,202.20	1,207.67	1,273.23	313.50	473.88	478.51	556.79
11월	326.82	1,177.70	1,178.35	1,248.47	282.59	439.88	436.34	524.84
12월	300.73	1,149.00	1,153.50	1,219.87	252.37	406.64	413.05	498.54
2001년 평균	359.84	1,214.49	1,224.27	1,280.19	345.67	493.70	503.80	575.81

(단위: 원/ℓ)

	경유(S:0.05%)				B-C (S:0.5%)		
	공장도		대리점	주유소	공장도		대리점
	세전	세후			세전	세후	
2000년 1월	304.75	536.75	543.32	583.35	266.22	292.84	297.53
2월	301.31	532.97	539.71	578.77	262.81	289.09	293.91
3월	322.59	532.97	539.07	578.12	262.81	289.09	293.78
4월	312.59	521.97	527.65	566.99	262.81	289.09	293.81
5월	272.04	500.77	507.40	548.97	244.52	268.98	274.85
6월	307.49	539.77	545.47	584.17	276.31	303.95	306.72
7월	307.49	539.77	546.05	581.66	276.31	303.95	307.00
8월	335.85	570.97	577.23	618.68	271.84	299.02	304.24
9월	362.58	600.37	606.13	648.06	271.65	298.82	303.23
10월	404.03	645.97	652.54	692.18	284.93	313.42	317.72
11월	404.03	645.97	651.87	689.90	293.03	322.33	327.72
12월	399.49	640.97	647.41	681.60	293.03	322.33	328.23
2000년 평균	336.19	567.44	573.65	612.70	272.19	299.41	304.06
2001년 1월	382.03	621.77	627.27	660.99	283.92	312.31	317.35
2월	382.03	621.77	627.55	658.18	265.76	292.33	297.85
3월	382.03	621.77	627.33	656.25	265.76	292.33	297.64
4월	396.04	637.17	641.43	663.57	278.66	306.53	311.34
5월	378.22	617.57	620.28	663.57	278.66	306.53	310.82
6월	378.22	617.57	618.28	644.55	291.14	320.25	325.08
7월	326.13	616.17	621.33	651.61	289.07	321.77	326.84
8월	320.67	610.17	611.84	649.43	289.07	321.77	327.98
9월	322.83	612.55	615.73	650.29	301.43	335.37	339.25
10월	318.74	608.05	606.04	651.45	302.34	336.37	341.61
11월	286.92	573.05	563.60	618.03	291.71	324.67	331.02
12월	251.39	533.96	535.29	585.17	280.18	311.99	319.15
2001년 평균	343.77	607.63	609.66	646.09	284.81	315.19	320.49

<주>각 제품별 전국평균 가격임



# 석유동향지표

## 석유지표

(단위 : 천배럴, 천\$)

	2000		2001		증 감 (%,%P)	
	11	1-11	11	1-11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총 수입	103,891	1,017,260	88,022	979,767	-15.27	-3.69
(금액)	3,212,170	27,770,577	1,798,629	24,246,725	-44.01	-12.69
- 원유	83,481	824,143	71,244	788,865	-14.66	-4.28
(단가, \$)	30.21	26.85	19.90	24.08	-34.12	-10.30
(원유대)	2,522,226	22,126,308	1,418,062	18,998,152	-43.78	-14.14
- 제품	20,410	193,117	16,778	190,902	-17.80	-1.15
(금액)	689,944	5,644,269	380,567	5,248,573	-44.84	-7.01
원유처리	77,713	810,635	71,574	786,820	-7.90	-2.94
(가동률, %)	106.25	99.55	97.86	96.63	-8.39	-2.92
제품생산	81,031	843,797	76,734	828,741	-5.30	-1.78
제품소비	64,185	673,604	64,409	668,071	0.35	-0.82

(주) 단가, 원유대는 FOB기준  
총수입: 원유+제품, 금액은 CIF기준

## 지역별 원유도입

(단위 : 천배럴)

	2000		2001		증 감 (%)	
	11	1-11	11	1-11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중동	63,898	633,911	51,906	614,894	-18.77	-3.00
남아미주	6,633	62,932	6,138	71,824	-7.46	14.13
유럽·아프리카	1,413	20,666	2,324	18,063	64.46	-12.59
오세아니아	9,573	75,313	6,425	51,529	-32.88	-31.58
계	1,964	31,321	4,451	32,555	126.67	3.94
계	83,481	824,143	71,244	788,865	-14.66	-4.28

## 석유제품 수급

(단위 : 천배럴)

	생 산		소 비		생 산 증 감		소 비 증 감	
	11	1-11	11	1-11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휘발유	6,755	69,803	5,310	56,907	9.68%	-0.03%	-8.04%	-1.64%
등유	8,113	66,031	5,986	50,995	-7.72%	-16.13%	3.31%	-15.27%
경유	18,007	199,434	11,849	119,216	-9.69%	-3.97%	9.61%	1.38%
B-C유	17,231	201,925	10,261	111,484	-16.09%	-1.47%	-8.95%	-2.77%
나프타	13,436	149,364	18,691	213,018	-1.54%	-1.63%	-1.76%	1.99%
프로판	893	10,405	4,220	36,406	-10.43%	6.26%	-6.53%	-13.40%
부탄	2,416	25,630	3,536	39,076	11.90%	17.28%	10.95%	13.45%
아스팔트	1,742	12,954	1,440	9,732	40.14%	6.33%	23.71%	7.70%
기타	8,141	93,195	3,116	31,237	7.67%	7.16%	17.81%	7.96%
계	76,734	828,741	64,409	668,071	-5.30%	-1.78%	0.35%	-0.82%

(주) 제품소비는 내수 기준

## 석유제품 수출입

(단위 : 천배럴, 천\$)

	수 입		수 출		수 입 증 감		수 출 증 감	
	11	1-11	11	1-11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물량	16,778	190,902	21,857	273,319	-17.80%	-1.15%	-20.49%	-1.91%
금액	380,567	5,248,573	445,254	7,322,184	-44.84%	-7.01%	-50.64%	-14.55%

(주) 수출은 미군납 포함